



○제23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상기호씨의 종이부처님 '건철지불'.

'98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건철지불'

'불교예술의 힘'

23년동안 불교작품 9점 대통령상... 특별상 이상 30여점

불교 전통공예가 우리민족의 공예문화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정덕용)이 올해로 23회째 개최한 전승공예대전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 9점이 입상권에 들었다. 해마다 불교 작품이 전승공예대전에서 다수 입상권에 드는 것은 불교가 우리 민족의 공예 분야에서 차지 않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입상작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상기호씨의 '건철지불'과 함께 △특별상: 금니미록하생경변상도(허천석) △장려상: 지장보살 목관(조정훈) △운통도와 반자문양(김이숙) △입상: 목바리대(김영철) 영산화상도목각탱화(허길홍) 지장도(문종립) 화장할때 탱화(최운정) 법고(이정기) 등.

불교 작품이 전승공예대전에서 수상권에 든 것은 제4회(79년)때부터다. 박근석씨의 법고 대통령상을 받은데서 시작해 그간 최고상인 대통령상에만 8번에 걸쳐 불교작품이 최고의 기량을 인정 받았다. 특별상 이상의 순위에 든 것은 모두 30여점에 이른다.

93년 '6나한도'로 대통령상을 받았던 김의식씨는 "불교 전통문화는 우리민족의 공예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왔다"며 "민족의 문화를 이끌어 온 종교로서의 불교의 공예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예품이 갖는 생활용품으로서의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부합시킴으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예술 장르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 전승공예대전의 대통령상 수상작 '건철지불(乾徹紙佛)'은 특별하다. 그간 제작방법이 전해지지 않던 지불을 재현해 냈기 때문이다. 건철지불이란 종이부처님을 말한다. 다름이로 불상의 기초를

새우고 종이와 삼베, 모시를 얹게 불허가며 옷칠을 거듭한 후 마지막으로 금분을 도금해 불상을 완성하는 것. 그러나 종이부처님을 만드는 비법은 근대이후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고려시대에 종이부처님이 다수 제작됐으며 그 전통은 조선후기까지 전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은 상기호씨는 그 잊혀졌던 제작법을 한지공예의 기법을 응용해 만들었다.

때문에 상씨의 작품은 심사과정에서 전통 불교문화에서 잊혀진 장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계기로 높이 평가 받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 전승공예대전의 기류를 불교 전통 공예가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전승공예대전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상의 권위에 훼손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의 경우 대통령상에 선정됐던 전권석씨의 '버선농'이 선정취소되기도 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심사과정을 상당히 까다롭게 개정해 심사작업을 통해 작가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상기호씨의 개인 경력과 제작과정에 남의 도움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이 일고 있어 수상자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심사과정의 실사경위와 작업과정 등을 세심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승공예대전은 조계종이 주최하는 불교미술대전과 함께 불교전통 공예의 발전에 중요한 터전이란 인식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상작들은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중문문화재단에서 볼 수 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역대 전승공예대전 불교관련 수상작 (특별상 이상)

- 제4회(79년)대통령상: 법고(박근석)
- 제5회(80년)대통령상: 연(강대규)
- 제6회(81년)대통령상: 자수대불(한상수)
특별상: 수기사(이현향)
- 제9회(84년)문화공보부장관상: 자수지장보살탱화(최유현)
특별상: 법고(김정철 이정기)
- 제10회(85년)특별상: 금니가사탱화(박정자)
- 제11회(86년)대통령상: 금니부모은중경명풍(박정자)
- 제12회(87년)특별상: 자수탱화(김태자)
- 제13회(88년)대통령상: 자수만다라(최유현)
특별상: 여래삼존도(김영철)
특별상: 자수대장제만다라가사(남상민)
- 제14회(89년)대통령상: 법상(박찬수)
특별상: 금니영산화상도(이인섭)
- 제15회(91년)대통령상: 자수법화경보살도(김태자)
특별상: 단청문양금니법공(양선희)
- 제17회(92년)특별상: 대방광불화엄경화엄법회도(양선희)
- 제18회(93년)대통령상: 16나한도(김의식)
특별상: 불자(김기찬)
특별상: 나전경합(김성호)
- 제20회(95년)문화체육부장관상: 목각수월관음도목관(조정훈)
특별상: 천불도(이영란)
- 제21회(96년)국무총리상: 불제입사염주암(이경노)
특별상: 사방천불탱화(김용우)

"완벽한 지불 재현 몰두"

"20년이 넘는 세월을 전지공예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간 백이 끊어졌던 '건철지불'을 복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상이라는 과분한 평가를 내려 준 것은 이 분야에 더욱 매진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라는 격려라 생각합니다."



제23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상기호씨의 소감이다. 상씨는 한지공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 기림사 지불(보물제415호)과 장육사지불(보물제993호), 백양사 극락보전, 불국사, 다보사, 불회사 등의 사찰에 모셔진 지불들을 친견하며 지불 제작기술의 복원을 발원했다. "제작방법이 소개된 특별한 자료가 없어 고생이 심했다"는 상씨는 "전지공예 기법과 아버지에게 전해들은 내용 등에서 제작방법을 고안해 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주물기법을 응용해 불상의 외형을 종이로 뜨고 닥과 모시, 삼베, 생옷 등의 재료를 안으로 붙여 나가며 작품을 완성했다고 소개했다. 그 과정에서 흠에 옷이 올라 며칠간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1년여를 매달려 수없는 실패 끝에 겨우 한 작품을 성공했다는 것.

"앞으로 보다 완벽한 지불의 재현에 몰두하겠다"는 상씨는 수상작 발표이후 자신의 제작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과 관련, "도움방법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을 두고 주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별상 '금니미록하생경변상도'



① 장려상. 운통도와 반자문양.
② 입상. 법고.
③ 입상. 지장도.
④ 입상. 목바리대.



간절한 마음과 공경 표현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15

합장

두 손을 마주대는 합장은 원래 고대 인도 사람들의 인사법의 하나로, 이것과 저것이 하나이고 몸과 마음, 너와 나, 선과 악, 중생과 부처 등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 담겨있다.

합장한다는 것은 두 손을 하나로 합침으로써 하나로 모아진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거나 상대방을 지극히

공경한다는 마음의 표시이기도 하다. 합장에는 '12 합장'이라 하여 12가지 모습의 합장이 있다. 합장은 세계 불교신도들의 공통된 인사법이지만 기독교에서도 기도할 때 손을 모은다.

원폭 그림은 감로탱화의 일곱 여래가 합장을 하고있는 모습이 오존폭 그림은 말구유에 놓인 아기에 수를 성모마리아가 합장으로 경배드리는 모습이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카를라다리오 작 '목자의 경배(부분)', 1483년. 사 세티에바람 소장.



○충공사 감로탱화(부분), 1682년.